

1조 [탱그르] 기말 최종 기획안

제 목	Memento		
러닝 타임	1:00	촬영 일정	5.25 (예정)
예 산	100,000 원	등장인물	엄마, 아들
조원	김민재, 김동규, 김은수, 김진균, 이수나, 이유미, 후슬랭		
기획 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별을 겪을 순간이 온다, 그러나 그 이별이 생각보다 꽤 일찍 오는 경우도 있다.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못했던, 그런 익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하고 싶었다. - 가장 큰 빈자리는 바로 ‘부모님’ 언제나 내 곁에 있어 편하지만, 없어서는 안 될 존재, 그 존재가 생각보다 일찍 없어진다면? 이라는 것에서 출발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. - 그 빈자리를 일찍 겪은 이들에게 잠시나마 ‘꿈’ 속에서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허전함을 충족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다. 		
전체 줄거리	<p>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,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아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. 취준하며 썼던, 버리려고 모아둔 종이들을 정리하며 “착하게 살았네, 기특하다”라고 말하는 엄마.</p> <p>자신이 적은 종이들이 부끄러운지 민망해하며 “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잖아!”라며 투정을 부리는 아들.</p> <p>그 모습이 귀여운지 영덩이를 토닥여주며 엄마는 “기특해서 그래 기특해서, 고생했다 아들. 하늘에서 계속 보고있었어” 라고 말을 한다.</p> <p>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직감한 아들, 결국 그 것은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엄마는 사라지고 잠시 적막함이 흐른다.</p> <p>잠에서 깬 아들은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이내 눈물을 흘린다.</p>		
참고 영상	<p>엄마의 시간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3nwkbBhLSiQ</p> <p>모든 걸 지켜내셨던 우리 아빠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ZFJm4sQlly</p> <p>[M/V] 라디(Ra.D) - 엄마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RHPRcivWrg</p> <p>엄마 때문에 눈물나는 순간2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6wYtD3OP-yQ</p>		

시나리오

S#1 밤, 집 안

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공,

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, 자기 방에 불이 켜져 있다.

들어가보니 주인공의 엄마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.

엄마 : 애는 정리 좀 하고 다니지 에휴..

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방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

아들 : 아 엄마,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잖아!

엄마는 아들이 열심히 쓴 자소서를 읽고 있었다.

엄마 : 착하게 살았네, 기특하다.

아들 : (자소서를 책 뺏으며) 아 쫘!

엄마 : 기특해서 그래, 기특해서

엄마 : 고생했다 아들,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,

엄마의 말을 듣고 멍.. 해진 주인공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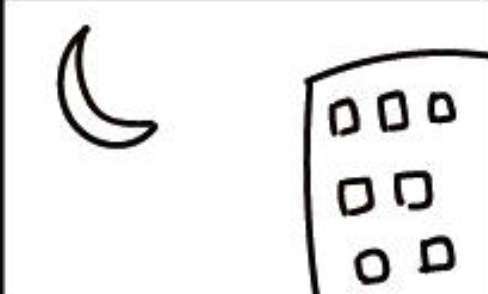



이내 꿈이었다는 것을 눈치챈다.

침대에서 일어나 어질러지 책상을 보는 주인공,

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만다.

Title :



Team : 태그2

Cut	Video	Context	Audio	Time
1		<p>늦은 밤,</p>		2'
2		<p>일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공</p>	<p>도어락 누르는 소리</p>	5' / 7'
			<p>문여는 소리</p>	
3		<p>뭔가를 보는 주인공</p>		2' / 9'
4		<p>자기 방에 불이 켜져있는 걸 본 주인공</p>		3' / 12

Title :

Team :

태그 2 2

Cut	Video	Context	Audio	Time
5		확인 하는 주인공		3' / 15'
6		주인공의 방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엄마	"애는 정리 좀 하고 다니지 에휴.."	3' / 18'
7		그 모습을 보고 짜증내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	"아 엄마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잖아!"	3' / 21'
8		주인공의 자소서를 보고 있었던 엄마		2' / 23'
9		자소서를 읽으며 흐뭇해 하는 엄마	"착하게 살았네, 기특하다"	3' / 26'

EH 223
5-2-1

Title :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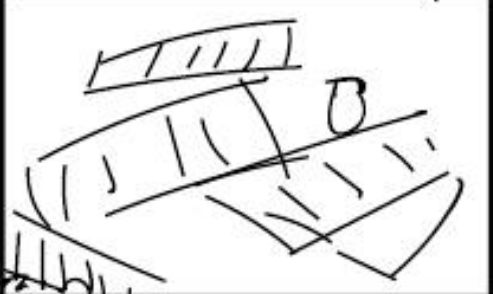

Team :

Cut	Video	Context	Audio	Time
10		부끄러운지 자소서클 책 뺏어가는 주인공 그 모습이 귀여운지 주인공의 엉덩이를 토타이는 엄마	"아 줌!!" "기특해서 그래 기특해서"	6' / 32'
11		주인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엄마	"고생했다 아들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"	6' / 38'
12		사라지는 엄마, 멍때리는 주인공		3' / 41
13		꿈이었던 것		2' / 44
14		화들 짝 놀라는 주인공		1' / 45'

Title :

Team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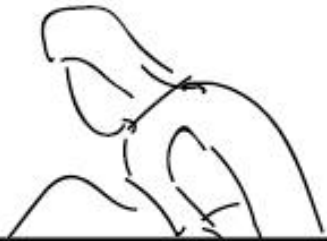


멍그르 4

Cut	Video	Context	Audio	Time
15		벌떡 일어난다		2' / 47'
16		아직도 멍한 주인공		2' / 49'
17		멍 때리다 책상을 바라보는 주인공		3' / 52'
18		넒부러져 있는 책상		3' / 55
19				5' / 60'

Title :

Team :

팀명 5

Cut	Video	Context	Audio	Time
				
		우울해 졌는지 고개를 숙이는 주인공		
20		암전		